



지적장애 문인 이승일씨 한국장애인예술인총람 등재

마당에서 자란 고추를 보고 '고추가 철봉을 타고 있네' 라고 표현하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며 '우유가 쏟아져 있다'고 여기는 한 소년이 있었다.

어릴 적 그저 다른 아이들 보다 조금 느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소년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엄마는 절망하지 않았고, 아들에게 매일 책을 읽어주며 아들의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순수한 본능을 끌어내 시(詩)창작의 가능성을 찾아냈다.

3년전 시집 '엄마, 울지 마세요 사랑하잖아요'를 내며 장애인 문인으로 주목받았던 소년은 한국장애인문화진흥회(회장 방귀희)가 최근 발간한 '한국장애인예술인총람'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남녕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일(21)씨,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어 예술혼으로 승화시키면서 문학·미술·음악·공연·방송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 200여명과 67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수록된 총람에 지적장애 문인으로 유일하게 인정받았다.

중학교 진학 후 마당에 있

는 꼬마 단풍나무와 친구하면서 시 쓰기를 시작해 마당 안에 있는 모든 화초들과 친구를 맺은 승일씨는 그들을 관찰하며 나눈 이야기를 시로 승화시켰다. 평소 일기행식으로 써오던 글들을 모아 2008년 시집을 펴냈다.

어머니 고혜영(52)씨는 "승일이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마치 석류와

같다"며 "기다리면 '저절로' 열리기도 하지만 적절한 때에 누군가 '톡' 건드려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터트린다"고 말했다.

이후 승일씨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주변에서 승일씨를 '시인'으로 바라봤다. 장애를 가진 동생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아야 했던 누나와 형도 '시인' 동생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고씨는 '장애인 가정'을 '잠재적 위기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형제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승일씨는 오늘도 시 쓰기를 멈추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에 맞춰 두 번째 시집을 펴낼 예정이다.



<낙엽>

낙엽이 떨어진 것 처음이에요
주룩주룩 떨어졌어요
노란색 빨간색 예쁜 옷 입었다가
겨울이 오니까
추운 바람이 부니까
나무는 잎을 떨구었어요
낙엽이 떨어지면 곤충들이 좋아해요
이불을 덮어주니까요
사람들도 좋아해요
비스크비스크
낙엽을 밟으며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주인공을 모십니다”

제주시, 29일까지 희망자 모집

제주시는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동거부부들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 희망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제주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결혼이민자 가구 등 총 15쌍이다.

합동결혼식에 참가를 희망하는 동거부부는 오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농주민센터로 신청해져 된다.

결혼식은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준비과정을 거쳐 5월 24일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신랑양복, 신부한복, 드레스, 턱시도, 부케, 사진촬영 등은 무료로 제공된다.

한편 제주시는 1984년부터 시작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지난해까지 총 473쌍이 참여했다.

문의=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571.

지면소개

- 종합 2·3면
신규바우처 사업 추가 선정
시설 탐방 천사 모집
- 사회복지소식 4·5면
다문화어울림배움터 · 소식마당
중도 시각장애인 '해피바이러스'
- 오피니언 6면
칼럼 · 시론 · 기고
- 특집 7면
한국형 복지모형과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UNESCO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국가사랑·제주사랑! 투표로 보여주세요.

※ 전 화 : 001-1588-7715 연결→60초간 영어안내→삐소리 후 7715 입력→Thank you 종료
※ 인터넷 : www.N7W.com (투표방법→제주도 홈페이지 참조) ※ 투표마감 : 2011. 11. 10

“바우처로 건강하게 키우세요”

道, 발달지연·학습장애아동 등에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검사비가 지원되고, 인터넷과 게임에 중독된 아동에게는 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자기주도학습코칭서비스 등 3개 사업이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돼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 415만 5000원) 이하 아동 2200명으로, 사업비는 총 8억5100만원이다.

아동발달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가 우려되는 만6세 이하 아동에게 발달기초검사, 언어발달검사 등 4개 영역에서 전문가 검사를 지원한다. 검사결과 2개 영역에서 이상을 보이는 아동에겐 인지학습치료 등

맞춤형 중재서비스가 4개월간 제공된다.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서비스는 만 18세 이하 중독 위험군, 잠재위험군 관정을 받은 아동 또는 기관장이나 교사의 추천에 의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에게 심리검사·상담, 인터넷·게임 대체활동 등의 서비스를 12개월간 제공한다.

자기주도학습 코칭서비스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학교 부적응 등 학습장애아동에게 학교생활 적응도, 성격진단 등 검사서비스와 삶의 장애원인 이해하기, 코칭대화법 등 자기주도학습 향상 프로그램을 4개월간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당 월 10만~18만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1만~2만원이다.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매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 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 제주정신건강복지연구소 등 10곳이다.

제주도는 37억원이 투입돼 2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회서비스비우체 9개 사업에 3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면서 장애 조기발견과 치유를 통해 건강한 자녀성장은 물론 사회서비스시장 형성으로 고용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등 9개 사업에 36억원을 투입, 연 5만 5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51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오정숙 국장(오른쪽에서 4번째) 등 공직자들과 (주)신세계 제주 이마트 관계자들이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마트, 소외계층에 1년간 물품 지원

이마트가 제주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오정숙)은 3월 11일 (주)신세계 제주 이마트와 나눔과 배움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

이마트는 협약에 따라 도내 다수의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1년간 3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정제주 구현을 위해 묘목 식재 사업과 직원 자원봉사 활동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다른 업체들도 나눔과 배움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찾아나서는 ‘이동상담실’ 연중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제도가 많이 있지만 신청절차 등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복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상담실은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소, 오일시장 등 도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업무 담당자들이 상담에 나선다.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 등을 접수한다.

제주도는 3월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



물 앞에서 올해 첫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사진〉이동상담실에서는 가장 등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사업, 무담보·무보증 융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 안내와 상담을 벌였다.



중증장애인 제주1일기행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최희순)은 3월 7일 중증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증장애인의 제주 1일 기행’을 실시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주)비너스고속관광 강정필씨의 후원으로 소인국테마파크, 유람선 관광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관람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속적으로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제주지역 중증장애인의 지역관광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덕희봉사대, 사랑의집 후원

삼광사 덕희봉사대(회장 김은자)는 2월 16일 사랑의집을 찾아 생활인들에게 필요한 7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후원했다.

제주 아동복지시설 4곳 전국 최우수

시설·환경 및 아동권리 부문 호평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아동복지시설 4곳이 최우수등급 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남아동복지센터, 제주보육원, 천사의집, 홍익아동복지센터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았다. 홍익영아원은 우수(80점 이상) 등급을 받았다.

아동복지시설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제고,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평균인 88.42점보다 훨씬 높은 93.07점의 좋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지표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고, 특히 시설·환경, 아동의 권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시설평가 결과 최우수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7대 자연경관 인터넷투표 참여

제남아동복지센터(원장 이상준)는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모든 직원들과 아동들이 제주가 세계 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도록 인터넷투표를 실시해 인증서를 받았으며, 전화투표에도 참여했다.



홈플러스서귀포점과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3월 18일 홈플러스 서귀포점에서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제주아동의 밝은 미래를 위한 사진전을 비롯해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홍보가 실시됐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협의회 2011년 2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제가결연후원	540,000	54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930,000	930,000
복지사업후원	1,245,000	288,000
푸드마켓후원	1,755,000	1,166,170

*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41)천사의집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

꽃샘추위가 한창이지만 가슴으로 키우는
천사들의 세상,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천사의집(원장 김성숙) 앞마당엔 따사로운
햇살이 머물고 있다.



현재 7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이곳은 1953년 9월 6·25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등과 함께 문을 열었다. 가정형편 등이 어려워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김성숙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가정과 똑같은 환경과 사랑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아이들에게 치유를 곁들 수 있는 선생님인 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아이들이 '편견'에 의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기 위한 활동과 퇴소 후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에 100% 가입했다.

뛰어난 학습효과를 보이는 아이들은 영재교육을 받고 있으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실을 따로 준비했다.

공부 외에도 아이들의 재능은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다. 김원택(제주도립교향악단 상임단원) 선생님의 지도로 2005년 창단한 '엔젤 첼로앙상블'은 지난해까지 5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질 정도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며 아이들의 자신감과 자존감도 함께 자라고 있다.

또 다른 음악활동으로 2009년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은 알프스'는 방운식(인천YMCA알핀로제어린이요들단 단장) 선생님의 지



김성숙 원장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도 아래 20여명으로 구성, 각종 행사에 초청돼 맑고 경쾌한 요들송을 선사한다. 2009년 창단한 '음치합창단'의 활동도 사랑스럽다.

주위에서 받은 사랑을 인근지역 청소년들에게 첼로를 가르치며 나눔도 실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위문공연 및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며 사랑을 베풀어준 분들께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불우노인을 찾아 '사랑나눔 음악회'를 여는 등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을 인정받아 지난해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에서 주최한 제12회 전국 중고생자원봉사대회에서 4명이 한 팀으로 응모한 '천사의 집' 학생들이 금상인 여성

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팀장인 정다운 학생은 한국을 대표하는 친선대사 자격으로 5월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푸르덴셜 미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한다. 김 원장은 천사의집 운영 방침을 '가정화' '개별화'라고 강조했다. "가정을 잃은 아이들에게 가정과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 아이들을 가슴으로 키우며, 개개인의 자질에 맞는 교육으로 사회에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려 한다"고 말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김 원장의 말처럼 천사의집 아이들은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받은 사랑을 나누며 꿈과 희망을 한층 아름답게 그려나가고 있다.

〈조순옥 명예기자〉



지역아동센터 열악...지원 조례 제정 필요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 후 공부방 및 쉼터 등의 공적 보호 시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운영 여건에 시달리고 있어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 확대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도지부(지부장 황의식)는 3월 30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위한 모안찾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토론회에서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제현우 센터장은 '제주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7년 이후 지역아동센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70곳으로, 1곳당 아동수를 30명으로 산정할 경우 2000명 이상의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 센터장은 "29명 미만 시설의 한달 운영비 350만원 중 80%를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가 아동들을 위한 직접 서비스 비용"이라며 "센터장들은 열악한 운

영비 구조로 인해 온전한 급여 집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실적 어려움은 기대 이하의 질 낮은 서비스를 자초할 수 있으며, 부실운영이라는 오명으로 사회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건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36%에 해당하며, 1년 임대료는 최소 220만원에서 840만원에 이르고 있어 센터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수준"이라면서 "시로부터 지원되는 운영비로 임대료를 낼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론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박미란 센터장은 보편적이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와 4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했다"며 "더 많은 아동에게 질 높은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Happy-i서포터즈' 프로그램 실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안기획사업의 일환으로 'Happy-i(아이)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Happy-i(아이)서포터즈' 프로그램은 남원·표선 지역의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으로 앞으로 1년간 80여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적·자폐성 장애청소년 '氷리수리 마수리' 운영

사회복지법인 유진재활센터 주·단기시설(원장 최은미)은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으로 지적·자폐성 장애 청소년의 과잉행동문제 해소를 위한 수영교실 '氷리수리 마수리' 프로그램을 주 2회(월·목요일) 하귀수영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유진재활센터는 ▲사춘기 장애청소년들의 성적 에너지 발산을 통한 정상적인 성장지원



▲운동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 증진 도모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부모 성교육을 통한 가족관계 강화를 위해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함께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서부복지관 '다문화어울림배움터' 호응

서부종합복지관은 2011년 사랑의 열매 제안기획사업으로 '다문화어울림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복지시스템이 미비한 지역실정을 감안해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향상을 위한 언어교육 및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6년 시작됐다.

처음에는 놀이 중심, 모임 중심으로 진행해 이주여성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였다. 이후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인 차원과 다문화가족의 차원을 넘어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피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이주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직접 기획하면서 의견을 내놓아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게 된 것이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수준별 한글교육과 자격시험대비반(한국어능력시험과 운전면허시험), 색다른 동아리반(댄스동아리, 밑반찬만들기, 동화구연), 맘마음클럽, 다문화이해교육 등이 있다.

또 이주여성들이 직접 기자가 되어 한국에서의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다문화신문(모다들영)을 발행하고, 위기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례관리와 모국 동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기술 습득을 위한 다문화활동양성이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해 8호째 발간 중인 다문화신문 '모다들영'은 이



주여성들이 직접 취재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거친 아기자기한 동네 소식들로 채워져 호응을 얻고 있다.

한 이주여성은 "처음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나에게 도움을 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다문화 어울림 배움터를 통해 더 많은 후배 이주여성들이 취업과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사회복지사는 "국제결혼여성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들의 남편, 시부모, 가족, 지역사회의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주여성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닌 한국사회와 가정의 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깨달을 수 있는 교육과 서비스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명예기자〉



신원복지재단 창립 10주년

사회복지법인 신원복지재단(이사장 정석왕)은 3월 12일 내외빈, 입소장애인인과 보호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4층 대강당에서 법인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법인 창립 10주년 기념식은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기념식과 10년 근속표창, 동영상 시청,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정석왕 이사장은 "중증장애 인식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이 요양병원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신원복지센터'를 건립하고,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 모범적인 장애인 복지전문법인으로 재도약해 한 국장애인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소/식/마/당

화북초, 아동폭력예방직원 연수



화북초등학교(교장 고문길)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 3월 16일 제주도어린이재단Cap교육센터 아동폭력예방전문가들을 초청해 아동폭력예방교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아동폭력, 성폭력, 호신술과 아동폭력 대처방안, 학교폭력의 학생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올바른 습관과 뇌 발달 비전특강



월드비전 제주가정개발센터(지부장 김관호)는 2월 26일 제주기독교교회관에서 AXIOM시스템학습법연구소 김연성 소장을 초청,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습관과 뇌 발달'이라는 주제로 비전특강을 실시했다. 또 고등학교 졸업생 5명에게 희망날개장학금(대학등록금) 800여만원을 전달했다.

하늘소리 봉사단 창단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음악적 소질 향상과 음악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위해 플루트교실을 마련,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나눔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늘소리 봉사단'을 창단했다.

플루트 구입과 임대는 제주은행이 후원했으며, 강사는 자원봉사로 송나라씨가 맡는다.

제주그랜드의원, 日 이재민 돕기 성금



제주그랜드의원(원장 김용석·허훈)은 3월 1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일본 대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재일 제주인과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으로 전액 지원돼 복구 작업에 사용된다.

장애인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 진행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3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들의 여가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송죽원은 에어로빅과 요가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잠재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공연행사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전문화된 여가문화활동을 홍보할 계획이다.

탈북 청소년지원 사례관리 협약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3월 18일 제주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계장 이윤계) 등 4개 기관과 탈북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컨소시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아라복지관은 지역내 탈북 청소년과 그 가족의 문제 및 욕구에 맞는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을 형성해 전문성을 살린 사례관리를 시행한다.



세상에서 나를 만나다

창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은 메트라이프의 지원을 받아 중증장애아동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연령별 프로그램 '세상에서 만나는 나'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실시한다.

평일에는 졸업생들의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체험활동이,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에는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음악치료와 지역사회체험이 실시된다. 또 분기마다 지역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창암재활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으로 접어드는 중증장애아동들에게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임을 인식시켜 사회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뜨개질 하며 희망 찾아요”

시각장애인복지관 ‘해피바이러스’ 진행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중도시각장애인들이 장애를 수용하고 사회적으로 무난하게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을 편성, 그들이 스스로 사회에 다시 참여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 중도시각장애인의 심리안정회복을 위한 ‘해피바이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손뜨개질을 통한 ‘손감각치료’와 필라테스를 통한 ‘운동치료’, 난타를 통한 ‘정서치료’로 구성됐다.

복지관을 찾은 날은 손감각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6명은 모두 중도에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들이다.

시각장애인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한데 모여 털실 뭉치를 들고 한코 한코 정성스럽게 뜨개질을 하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도 찾기 힘들어 보이는 작은 매듭 구멍을 손의 감각만으로 어찌 그리 잘 찾는지, 손놀림이 아주 능숙하다.

여든을 훌쩍 넘긴 김남순(시각장애 1급)씨는 “집에서 자식을 보호만 받으며 시간을 보내다 복지관에 나와 뜨개질을 배우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하루 하루가 즐겁고 빨리 작품을 만들고 싶



△ ‘해피바이러스’ 사업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할머니들이 정성스럽게 뜨개질을 하고 있다.

은 마음에 바늘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순여(시각장애 1급)씨는 “뜨개질을 한 코씩 뜰 때마다 옛날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던지, 눈이 어둡기 전에는 애들 웃도 직접 다 짜 입히고 했다”며 옛 시절을 추억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양정선 사회복지사는 “중도시각장애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상실감을 회복시켜 자조적인 역량을 강화해 장애의 아픔을 딛고 세상의 편견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성 명예기자〉

시 H차르 타서 조 아 요
고맙습 니다

“큰 선물준
덕산에 존경과 감사”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이 후원자의 큰 사랑으로 이용이동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다닐 승합차량 1대를 구입했다. 본지에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글을 전해왔다.

아라어린이집 꽃잎반 곡현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전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됐습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처

큰 선물을 주신 (주)덕산의

고마운 마음에 존경과 감사

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아이

를 차에 태워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주)덕산의 깊

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금 감

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

다고들 하지만 (주)덕산과 같

은 단체가 계시니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이유가 있나

봅니다. 김철하 시인의 시 한

소절로 (주)덕산의 고마움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

고자 합니다.

새해 내 소망의기도가

하늘에 닿아 영광이 내려고 땅으로 스며 한가로이 솟구쳐서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울 한해 하고자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감사의날이 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복된 한해가 되게 하소서.



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

제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수연)는 3월 11일 제주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와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2011 자원봉사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세현 제주한라대학 교수가



‘지방자치시대의 자원봉사의 가치’를 주제로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했다.

또 제주가 세계 7대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서 홍보관이 될 것을 다짐하고 홍보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성훈 신부애덕의집 원장 취임

현성훈(토마스 A.) 신부가 3월 1일자로 제주애덕의집 3대 원장에 취임했다.

현 원장은 취임식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가정공동체’라는 비전에 따른 실천전략으로 각자에게 맞는 신앙생활과 더불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자는 미션을 제시했다.

또 서로 공들이기, 토론하고 연구하기, 서로 나누기, 함께 참여하는 놀이문화를 개발, ‘신명나고 살맛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과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체험휴 운영을 늘려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도 실버스마일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3월 17일 서귀포시니어클럽(관장 박재천)과 2011년도 노인일자리사업-실버스마일사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상호유대를 통해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는 등 노인권익증진과 인권보호 등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사업 공동 진행 또는 지원 등에 합의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



해 일자리참여 노인인에 대한 직무교육 및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서귀포시니어클럽은 실버스마일사업단을 관리·운영해 서귀포지역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춘강-평대리 1사1촌 자매결연



사회복지법인 춘강(이사장 이동한)은 3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사무소에서 평대리(이장 이영석)와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춘강은 자매결연을 통해 앞

으로 잉여농산물 구매하기, 노약자 무료 진료, 농가 일손 돕기, 주변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펼쳐 평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춘강은 1987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에서 받은 지원과 사랑을 환원하기 위해 ‘나눔경영’을 실천해 왔다.

한부모시설 가족프로그램 스타트

가족사랑상담소는 한부모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3월 11일 싱글맘과 자녀들의 집단상담을 시작으로 가족프로그램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가족사랑상담소는 앞으로 싱글맘과 자녀들을 위한 집단상담(10회)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 문화체험, 자녀와 함께 듣는 특강 등의 일정으로 사업을 연중 진행한다.

가족사랑상담소는 아버지의 부재에 따른 개인 심



리적인 문제, 여성이라는 사회적인 편견과 환경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취약성과 자녀양육의 문제 등으로 이중·삼중고를 겪는 이들에게 개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사회적인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푸드마켓
FOOD MARKET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3월 식품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16kg ▲서문식품=두부 432모 ▲김치원=김치 75kg ▲푸른축산물판매장=돈육 10kg ▲유진상사=식재료 996개 ▲싱싱부식=김치 45kg ▲이여도지역자활센터=채소류 355kg ▲홍부네찜빵=찜빵 72개 ▲아산재단=쌀 200kg ▲키즈카페=우유(1ℓ) 15개 ▲김길생=생필품류 18개 ▲김진훈=감귤 200kg

칼럼

‘약해지지 마세요!’ - 99세 할머니 시인의 울림



이 선 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누구에게나 한번 뿐인 삶을 살아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단지 견디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견디면서 희망의 작은 불씨라도 찾아야 기댈 수 있는 시간들이 온다는 것이다. 아마 지금 일본 열도에서 지진해일이 남긴 고통과 싸우는 이들이 그럴 것이다. TV를 통해 그들의 침묵과 흔들리는 눈빛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잘 견디어내는 것과의 싸움이란 걸 다시 한 번 배웠다.

지진해일 피해자에 인세기부

한 노인이 98세에 이런 고백을 했다.

“나 말야,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 그렇지 만 시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격려 받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는 소리는 하지 않아. 아흔여덟 살에도 사랑은 한다고 / 꿈도 꾸다고 구름이라도 오르고 싶다고”(시바타 도요의 ‘비밀’중에서).

92세에 시를 처음 시작한 시인 시바타 도요가 작년에 쓴 인생고백의 시이다. 황혼의 마지막 길목 일지 모르지만 살날이 있는 한 사랑과 꿈이 있음을 말하는 이 할머니 시인이 3·11대지진 피해자를 위해 지난 3월 17일 ‘피해를 당한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시를 조심스럽게 발표하며 인세를 기부하였다.

“이 무슨 일인 걸 까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저 손을 모을 뿐입니다 / 여러분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싶습니다 / 이제 곧 100세가 될 나, 천국에 갈 날도 가까울 테지요 / 그때엔 햇살이 되어 / 산들바람이 되어 여러분을 응원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괴로운 나날이 이어지겠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올해 99세가 된 할머니 시인이 대지진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슬픔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

日 국민 · 동포에 사랑 전하자

슬픔은 거름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슬픔을 혼자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나의 슬픔으로 같이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지진해일로 일본인들만이 아니라 고향을 위해 도와주었던 재일동포들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었던 재일동포들의 ‘고향사랑’에 이번엔 우리가 약해지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그 사랑을 되갚아야 할 차례이다.

천국에 가더라도 햇살과 산들바람이 되어 응원하겠다는 할머니 시인의 사람에 대한 사랑처럼 지식과 부모와 집을 잃은 이웃 국민과 동포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하겠다. 아침은 반드시 온다.

기고

시골마을에서 펼쳐진 ‘대학로 소극장 공연’



문화공연을 접할 기회가 없는 농어촌지역인 구좌읍에서 난데없는 ‘대학로 소극장 공연’이 펼쳐졌다.

2월 19일 저녁 7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경희)에서는 제주출신 인디밴드인 ‘연금술사’의 ‘구좌사랑, 행복찾기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공연장으로 쓰인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4층 강당은 200여명의 지역주민들로 가득 채워졌고, 2시간이 넘는 공연시간 동안 연금술사밴드의 자작곡, 익히 알려진 가요와 팝의 레퍼토리로 구성된 다채로운 인디밴드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연금술사밴드의 공연은 물론이거니와, 복지관 직원과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동네밴드’의 오프닝 공연과 ‘Nella

Fantasia(나의 환상)’라는 곡을 오페라가수 뽀치는 실력으로 부른 김연정 제주가톨릭문화원장의 특별공연 또한 지역주민들의 열띤 갈채를 받았다.

이번 공연이 구좌지역주민들에게 전해준 감동만큼이나 공연이 열리게 된 계기 또한 순수하고 각별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008년 발족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이루다사업단’의 청소년 밴드동아리 단원과 연금술사밴드의 우연한 만남이 그 시작이었다. 이루다사업단의 청소년 멘토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남(26·연금술사 매니저)씨의 소개를 통해 밴드동아리 단원들이 제주시 중앙로의 소극장에서 정기공연을 갖고 있는 연금술사의

‘행복찾기 콘서트’ 단체 관람을 계획하게 된 것.

난생 처음 인디밴드의 라이브 무대를 관람한 단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후로는 적어도 두 달에 한번 씩은 사회복지사의 인솔 하에 구좌와 중앙로를 오가며 연금술사의 콘서트를 관람했고, 먼 거리를 오가며 자신들의 공연을 보며 많은 성원을 보내주는 소년·소녀팬들에게 감격한 연금술사의 멤버들은 직접 그들의 마을로 찾아가 공연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지난 2월 19일은 바로 그 약속이 지켜진 날이다.

연금술사와 공동주최를 하며 공연홍보를 맡았던 복지관 직원들은 이러한 공연은 지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과연 주말 저녁 시간에 생소한 인디밴드의 문화공연을 보러 복지관까지 올까? 라는 염려를 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역을 불문하고 이념과 국경의 벽까지 허무는, 문화가 지닌 힘은 이번 연금술사밴드의 ‘구좌사랑·행복찾기 콘서트’에서도 발휘됐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다. 공연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행복이 가득한 표정이었음은 당연했다.

〈양권철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시론

마음의 눈

“...진달래 먹고 불장구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에...” 하면서 미성의 고음으로 열창하던 가수 이용복. 새까만 선글라스에 흰 양복을 입고 무대 위에 혼자 오도카니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그. 그의 노래를 들을 때 나는 적막했다. 세포 하나하나가 문을 닫고 숨죽여귀 기울이게 하던 그의 노래.

지금 마흔 네다섯 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30년이 더 된 일인데도 쉬이 잊히지 않는 건 왜일까. 시각장애인이어서 그런 걸까. 아니다. 그의 노래엔 분명, 듣는 이의 가슴에 불 주름 일게 하는 애잔한 영혼의 울림이 있다.

한데 2년 전, 가수 이용복 씨를 바로 코앞에서 보았다. 생각지도 않은, 우연한 만남이었다. 그때가 2월 하순께, 성산일출봉이 바로 눈앞인 유채꽃밭. 들성등성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었다.

“아버지, 차에서 내리는 저 분 봐요. 가수 이용복 씨네요.” 작은아들이 가리키는 쪽으로 눈을 보내면서 깜짝 놀랐다. 맞다. 이용복 씨인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동그스름한 얼굴에 아직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지 않는 매끈한 홍안. 그는 가족으로 보이는 한 여인의 도움을 받으며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장애·비장애차이도 없고 차별도 없다

그때, 언뜻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아니, 앞을 못 보는 분이 성산일출봉과 유채꽃을 보러 제주에까지 오다니.’ 여태 관광갈에서 눈 먼 분을 만나기는 처음 있는 일이라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태연했다. 예의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표정을 읽지는 못했지만, 그의 몸 전체에서 느끼는 그 차분한 기운은 보통 사람을 넘는 것이었다.

앞 못 보는 그는 무엇으로 일출봉을 바라보고 눈 앞의 샛노란 유채꽃을 볼까. 하지만 안타까워하는 것은 나였지 그가 아니었다. 그는 가볍게 도움을 받으며 유채꽃이 무덕무덕 피어 있는 돌담을 끼고 찬찬히 걸어가고 있었다.

결이 말을 할 거다. 하긴 그 이전에 그는 산을 보고 꽃을 느낄 것 같다. 눈만 눈인가. 마음의 눈—심안(心眼)이 있지 않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성산포의 바다냄새와 유채꽃 향기와 아직 한기 덜 걷힌 하늬의 카테일을 즐기고 있으리라.

그가 유채꽃을 보기 위해 제주에 온 연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다. 그는 단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눈이 멀정한 사람 못잡게 혹은 그 이상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사물의 속살을, 사람들의 속내를, 그리하여 이 섬의 시간과 공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순간, 나는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에 눈길을 보내며 삶이란 명제를 떠올려 허공에다 걸어놓았다. 앞이 안 보이는 분도 저렇게 밝은데, 저렇게 맑고 튼튼한데, 소소사에 흔들리며 휘청하고 있느냐...

장애 있음과 장애 없음의 차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차이가 없으니 차별은 가당치도 없다는 단안에 이른다.

그는 이 섬의 물결소리에 귀 기울여가며, 섬의 냄새를 맡아가며, 보이지 않는 시각을 청각과 후각의 공감각(共感覺)으로 변환해왔으리라. 그리고 며칠간의 관광에서 이곳저곳 아름다움으로 차 넘치는 제주의 풍광을 만끽하고 떠났으리라. 그는 장애인이었다.



김길웅

수필가·시인

■ 복지, 적절한 수준은 무엇인가? 한국형 복지모형과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서비스 공급,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복지, 적절한 수준은 무엇인가?

< 한국형 복지모형과 사회서비스의 발전방향 >

11.3.21(월) 14:00 장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강당 주최: 한국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는 3월 21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 전문가 및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포럼 ‘복지, 적절한 수준은 무엇인가? - 한국형 복지모형과 사회서비스의 발전방향’을 개최했다.

본지는 포럼 발제자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3월 21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포럼 ‘복지, 적절한 수준은 무엇인가? - 한국형 복지모형과 사회서비스의 발전방향’을 개최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으로 의료비 절감”

정경배 원장 한국형 복지모형의 균형적 접근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은 ‘한국형 복지모형의 균형적 접근’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균형적 복지경제’를 새로운 복지모형의 모델로 제시했다.

정 원장은 “균형적 복지경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진화 발전을 지속하고, 총체자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되며, 생성된 소득(가치)은 생존우선순위로 분배되어 삶의 질과 정서적 행복감이 충족된 안정사회”라고 설명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 원장은 ‘한국적 특징’의 핵심적 요소인 ‘협동’, ‘유대’, ‘가정같은 정서’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불균형공급)·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등을 극복하고 ▲고령인력의 기능적 자활 ▲정서복지대책 마련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지역복지 의료 통합안정망 기능 강화 등을 역설했다.

정 원장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정년퇴직 이후 건강하고 오래 사는 노인(healthy active elderly)이 증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 노후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노년생활의 가족 및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생산적 노인복지를 위한 창업 및 자활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며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고령인력뱅크’와 고령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창업지원단’ 설립·운영을 주장했다.

고령인력뱅크는 중소기업 등과의 연계망을 통해 취업알선, 자활활동 등을 지원하고, 고령창업지원단은 각 시·도의 노인복지기금에서 고령창업지원

기금을 확보해 50대 이후 정년·조기퇴직 가장 및 고령계층을 위해 장기저리 융자 및 창업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정 원장은 또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국민의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심각한 적자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의료비 절감을 제시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지수를 개발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국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강증진사업이 전 국민에게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지수의 변수로는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비만, 금연 등을 들었다. 이는 생애주기별로 사전예방과 건강증진에 의한 ‘평생건강관리’를 통해 질병과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의료비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 원장은 건강지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건강지표개선으로 청소년들의 성인병 관련 만성질환 예방과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사업과 사회보험의 연계성을 통한 정부정책 효율성 증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생활화 정착에 따른 사회규범 준수와 윤리성 향상을 꼽았다.



“프로그램 서비스 구매계약 도입 필요”

이봉주 교수 ‘선진복지사회 지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발전방향’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진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의 욕구와 대상자의 삶의 질 변화를 중심에 놓는 수요자 중심적인 공급체계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는 공급자 중심적인 체계로 발전해 왔다”면서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입이 가능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폭 성장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는 기본적으로 1960년대의 공급자 중심적인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국가가 직접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경험을 갖지 못한 민간 사회복지재단이나 기관들의 시설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가 발전해 온 것이다.

이 교수는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원이 얼마나 서비스 수요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초래한다”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 대상자의 삶의 질 증진에 있음으로 그 성과는 투입을 통해 과연 얼마나 서비스 대상자의 삶의 질의 향상됐느냐를 통해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상호책무성 결여 ▲사

회복지시설에 대한 일괄적인 보조금 사전지원 ▲투입중심의 평가 및 결과 활용체계 미발달 등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체

계 ▲통합적 사례관리체계의 미비 ▲낮은 수준의 서비스 접근성과 선택권을 꼽았다.

이어 수요자 중심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대안으로 ▲프로그램 서비스 구매계약 제도 도입 ▲투입위주 평가에서 성과위주 평가체제로 전환 ▲통합적·맞춤형 사례관리체계 도입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개선 ▲바우처제도의 확대 ▲서비스 이용료를 대상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직접지불방식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대표적인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총량은 확대됐으나 질적 수준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급체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수요자 중심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은 목표지향적인 복지와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영의 융합을 통해서 설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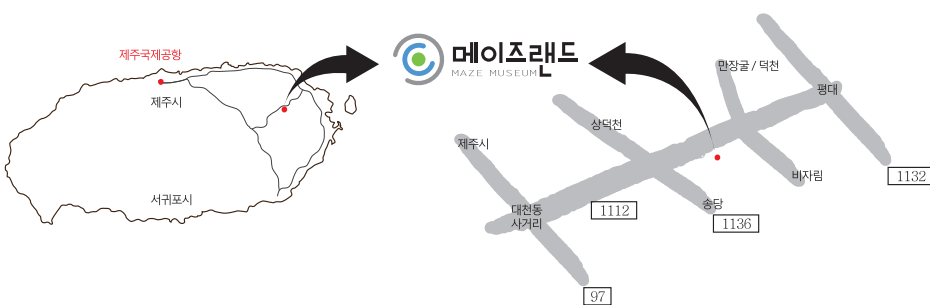
2011. 4. 14 GRAND OPEN

www.mazeland.co.kr



IT와 미로와의 만남... 세계 최대 미로, 세계 최초 미로박물관

세계최대 미로테마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322번지

064-783-3838

내비검색 메이즈랜드 / 7843838

- 공항에서 오시는길
공항-동부 일주도로(1132번 국도)-평대-비자림로(1112번 지방도)-메이즈랜드
공항-동부산업도로(97번 국도)-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1112번 지방도)-메이즈랜드
공항-516도로(1131)-비자림로(1112번 지방도)-메이즈랜드
- 성산포에서 오시는길
성산포-동부 일주도로(1132번 국도)-평대-비자림로(1112번 지방도)-메이즈랜드
- 서귀포에서 오시는길
서귀포-516도로(1131)-비자림로(1112번 지방도)-메이즈랜드
서귀포-동부 일주도로(1132번 국도)-평대-비자림로(1112번 지방도)-메이즈랜드